

# 경찰윤리

3

경찰윤리의 이론적 토대  
공리주의(합리론)과 의무론

# 경찰윤리의 이론적 토대

- 윤리
  - 윤리학에서는 기본정신 혹은 원리로서의 윤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기준. 자연법적 접근
  - 사회학에서는 특정한 질서 혹은 제도로서의 윤리.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전제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규범. 실정법적 차원의 접근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정립을 위해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이나 제도는 윤리가 부패척결이라는 실질적인 통제기제로서 사회학적 규범의 영역
- 경찰윤리
  - 직업윤리로서 특히 공직윤리의 한 분야로서 전통적 윤리학에서 다루는 추상적, 이론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경찰상황에 대입해서 그 해결기준과 합리적 결정을 돕는 실천윤리학
  - 경찰활동은 국가권력과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기초로 형성되는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정치철학의 영역
- 경찰은 국가로부터 권력을 부여 받았다는 점에서 형식적 정당성 확보
- 경찰의 경찰권 혹은 공권력의 행사는 항상 정당성을 보장받는 것인가?
  - 치안정보 수집의 직무 활동으로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해 공산주의 혹은 반국가 혐의 처벌
  - 시위대에 대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진압 (경비업무 경찰)

- 윤리학: 전통적으로 당위에 관한 탐구, 옳고 그름, 정의로운 것, 좋은 거에 대한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를 제사하는 규범윤리학
  - 규범윤리학은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으로 구분
  - 전문화된 직업환경과 그 특성에 기초한 윤리이론의 적용, 예컨대 의료윤리, 기업윤리, 공직윤리, 법조윤리 등이 직업윤리의 영역으로 발전
- 최근 정치철학의 윤리 이론적 토대는 크게 두 가지 시각에 발전
  - 공리주의의 목적론(혹은 결과론)과 칸트의 의무론
  - 공리주의의 목적론 (제러미 벤담)
    - 공리란 '이해당사자에게 이익, 이득, 쾌락, 좋음, 행복을 산출하거나 해악, 고통, 악, 불행의 발생을 막는 경향을 가진 어떤 대상에 속성'. 공익 혹은 공공선을 포함할 수 있으나 동일한 개념은 아님.
    -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과에 비추어 평가함.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
    - 행복, 쾌락, 욕구 등의 결과를 통해 정당성을 판단하고, 특정 행위의 윤리적 정당성은 다른 행위에 비해 얼마나 좋은 쾌락을 가져오는가 따라 결정. 결국. '결과론' (목적론)의 입장.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쾌락 측정의 한계, 소수의 행복이 무시될 가능성
- ❖ 파놉티콘 - "진행되는 모든 것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의 의미. 수감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원형 감옥의 이름 (감옥 관리의 효율성)

- 밀즈
  - 공리는 '효용' 즉 행복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
  -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이론에서 벤담과 동일
  - 질적 공리주의 –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정신적 쾌락과 낮고 저급한 쾌락을 구분
    - 향구성, 안전성, 비용 등의 장점에서 육체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이 우월
    - 배부른 돼지, 만족한 바보, 배고픈 인간, 불만족한 소크라테스
  - 행복의 근원 – 인격의 존엄을 바탕으로 한 쾌락 추구
    - 쾌락의 질적 요소를 고려.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
  - 인간의 존엄성과 정신적 쾌락의 중요성 강조
  - 질적 공리주의
    - 내적 제재 : 양심, 이타심 (동정과 이해)의 사회적 감정
    - 도덕의 본질 : 이타심을 바탕으로 공익과 정의의 실현
  - 공리주의의 원칙
    - 모두는 개인의 행복 또는 이익이 전체의 이익과 가능하면 최대한 조화를 이루는 법과 사회 제도 구축
    - 모든 개인이 자신의 행복과 전체의 이익 사이에 긴밀한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함

# 공리주의의 목적론

- 우리나라 헌법 제9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공리주의 규범을 정당화
- 공리주의는 벤담,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한 발전 : 사회 내 모든 구성원들의 행복이 얻을 수 없을 때, 사회 전체의 총체적 행복을 극대화하면 된다는 논리
- 공리주의의 세 가지 명제
  - 어떤 행위가 옳고 그른지는 그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판단될 뿐이다.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는 옳은 행위
  - 행위결과에 대한 판단 기준은 행복과 불행의 양. 행복의 양을 최대화하는 것이 옳은 행위.
  - 개개인의 행복은 동일하고, 어떤 사람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보다 특별하지 않다
- 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 을 가오는가가 기준이 됨.
  - 법의 목적 혹은 법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목적은 도덕의 목적과 같은 것이며, 이는 모든 시민의 일반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

# 공리주의 형벌론과 교정학적 의미

- 공리주의 형벌론조
  - 형벌의 목적은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적 공리성 강화. 즉,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막으며 최소 비용을 통해서 최대 효과를 두는 것임.
  -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형벌의 근거라는 응보주의 형벌론과 대비
  - 벤담은 처벌에 있어서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처벌을 지양하고, 위법 행위와 관련된 처벌의 균형을 강조
  - 형벌의 규칙으로 처벌의 가치가 위법행위에 의해 얻는 이득보다 커야 한다. (1천억 배임죄 재벌총수가 사회봉사 80시간 벌)
  - 형벌의 규칙으로 위협 행위의 폐해가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른 처벌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비용은 처벌 과정에서 지불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파놉티콘의 감옥 설계)
- 공리주의는 벤담,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한 발전 : 사회 내 모든 구성원들의 행복이 얻을 수 없을 때, 사회 전체의 총체적 행복을 극대화하면 된다는 논리
- 처벌의 목적이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고, 위법자의 신체적 힘을 통제하는 처벌을 '교정(reformations)', 위법자의 신체적 힘을 통제하는 처벌을 '무력화(disablement)', 타인들의 행위에 관한 영향력을 통제하는 처벌을 '본보기(example)'이라고 하였음.

- 공리주의(벤담)의 처벌에 대한 의미
  - 처벌로 사회나 범죄인이 겪어야 하는 부담이나 고통보다 범죄의 억제와 범인의 재활이라는 이점이 크다면 처벌의 정당성 인정
  - 형벌의 능률적 집행을 위해 '파놉티콘'을 고안
- 피랍된 여객기가 도심을 향해 접근해 온다면, 이를 격추하여 도시를 보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의 피해를 줄이는 대응책만을 마련해야 하는가?
- 노숙자 혹은 주취자들은 사회질서의 평온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증대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숙과 음주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재활치료를 위해 강제 수용 방안을 마련한다면, 공리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 미국은 공원, 버스터미널 등 다중시설에 음주하거나 노숙하는 경우에 철저히 단속하는 도시 조례를 대부분 시행하고 있음. 일부 도시에는 대로변에 눕거나 노숙을 금지하고 있음.
- 이런 정책 혹은 치안활동의 윤리적 문제가 있는가?
  - 경찰활동의 윤리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국가 혹은 사회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경범죄처벌법 중에서 윤리적으로 가장 문제가 있는 조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파놉티콘

- 파놉티콘 : 진행되는 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건축 구조. 중앙에 원형의 감시탑이 있어 그곳에는 감시자가 머물고 그 주위에 원형으로 수용자들이 머물게 되는 형태이다.
  - 중앙의 감시탑은 항상 어둡고 수용자들의 방은 항상 밝은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 때문에 수용자들은 감시자의 부재 또는 감시자가 어느 곳을 지켜보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는 항상 감시 받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감시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
- 파놉티콘이 감옥과 같은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시설에까지 확대가능.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그는 최소한의 비용과 최소한의 감시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파놉티콘을 이상적 사회의 축소판으로 봄.
- 벤담은 공리성의 원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감옥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벤담은 동생의 공장시설에 이런 생각을 가져옴)
  - 감옥을 개혁하는 것은 죄수들을 교화하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은 비용으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공리성의 원리는 비용-편익의 원리와 연결되는 것임.
  - 미셸푸코 (프랑스 철학자, "감시와 처벌 ") - 파놉티콘은 누구라도 감시자가 되고, 죄수는 감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구조로써 근대 권력의 구조 특징이라고 비판. 감시는 규율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학교, 직장, 공장 등 모든 영역에서 수용)

# 마키아벨리의 목적론적 윤리

- 마키아벨리는 원리나 보편적 법칙을 경시하고 철저하게 결과에 따라 행동하는 군주를 높게 평가함.
  -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 고집하다가 권력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움. 결국 권력을 장악하고 포부를 펼치고자 하는 군주라면 도덕적 속박을 벗어나고 현실적 이익에 따라 냉정하게 계산된 행동을 할 줄 알아야 함.
  - 역사적 경험을 볼 때, 훌륭한 업적을 보인 군주들은 자신들의 약속을 별로 중시하지 않았고, 교활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작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 자신에게 충성하던 사람들마저 저버리는 행동을 마다하지 않았음을 지적
- 선하고 좋은 의도를 지닌 사람들이 종종 나쁜 정책을 만들거나 나쁜 행정을 초래하고, 인간이 선해지지 않는 법과 유익한 결과를 위해 선과 악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함.
- 현명한 군주
  - 짐승의 성격과 인간의 본성을 현명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여우와 사자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함
  - 유능한 군주라면 도덕에 속박되지 말고 다양한 현실적 선택지를 고려하고, 군주는 자질을 갖추기 보다는 갖춘 척 행동
  - 인간은 군주의 실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주는 '반드시 최종 결과'를 고려해야 함.



# 불법이민자 단속과 가족분리 정책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17년 시행한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정책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진 545명의 아동이 아직 부모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인터넷매체 폭스(VOX)는 피해 아동들의 부모 찾기 작업을 진행 중인 단체 '시민자유연대'의 변호인단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 이 단체에 따르면 이들 아동 중 부모가 사실상 실종 상태는 283명에 달하고, 이들은 자칫하면 평생 부모와의 재회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밖에 75명은 부모의 연락처를 알지만 전화 연락이 닿지 않고, 187명은 소재지는 파악됐으나 접촉이 안 되는 상황이다.
-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중반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 부모를 구금해 추방하는 한편 자녀는 연방 보호시설 또는 미국 내 친척 집에 보내거나 입양시키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
- 2018년 5월에 공식화하면서 '무관용 정책'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한 이 정책으로 최소 5천여 가족의 구성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그러나 시민사회로부터 반인륜적 정책이라는 비난이 거세지면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격리된 가족 구성원들이 재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정책을 폐기하라는 명령을 연방정부에 내렸다.
- 연방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법원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수백명에 달하는 5세 미만 아동들의 부모를 찾는 작업도 게을리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가족을 분리하지 않고 같은 곳에 구금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연합, 2020/10/22)

## 베카리아의 공리주의 (범죄와 형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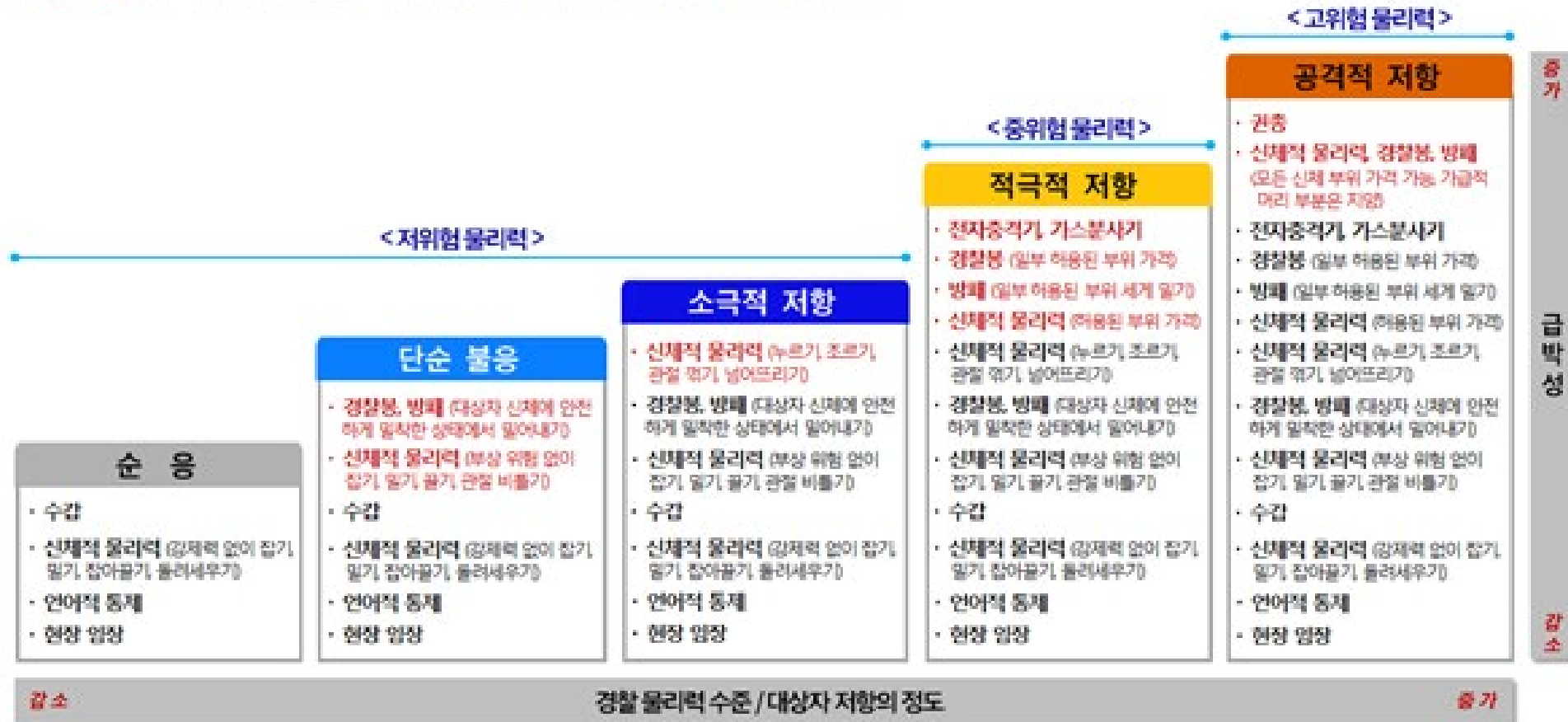
- 형벌관의 공리주의적 관점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본성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도출. 베카리아는 인간의 보편적 특성을 욕망의 충족을 향한 투쟁이라고 규정함.
- 형벌을 통해 인간이 갖고 있는 '압제적 성향' 이나 욕구 충족의 성향이 사회를 원초적 혼란 상태로 빠져들지 않도록 막으면서 공공의 자유와 복지를 방어하는 계기로 활용
  - 형벌을 통해 사회에 해악을 초래하는 범죄가 적게 발생하면 할수록 그것이 공익과 일치
- 범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를 강조
  -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서로 다른 두 범죄에 대해 동일한 형벌을 적용하게 되면, 더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억지력이 사라지게 됨.
  - 범죄예방의 효과는 '강도' 가 아니라 '지속성' 에 있음. 형벌은 타인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지녀야 함.
- 형벌의 정당성은 범죄를 억지하거나 예방하는 효과에 있음.
  - 그러므로 형벌은 범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벌을 받고 있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일반 시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뤄져야 함.
  - 베카리아는 사형제도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반대함. 순간적인 공포감을 주고 망각해 버리는 사형보다 지속적으로 고통의 본보기가 되는 종신 swldurgud이 더 합리적인 형벌이라고 생각함.

# 공리주의와 경찰활동

- 절대주의와 중상주의를 옹호했던 절대 군주와 특권층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려는 당시에 진보적인 사상
  - 벤담은 중앙집권화된 강력한 정부를 좋아하지 않았고, 정부의 간섭은 자연적 조화와 효율이 깨진다고 생각
  - 그러나 경제적 측면의 조화가 모든 다른 영역에서도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이고, 경찰의 영역에서는 법과 정부의 개입으로 인공적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봄.
-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인정
  -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응보적 결과(죄값 지불)가 아니라, 이런 처벌로 잠재적 범법자들에 대해 범죄예방의 공익적 효과가 크다고 기대
- 경찰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으로 상당성의 원칙 혹은 협의의 비례원칙에 토대
  - 상당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원칙):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을 비교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
  - 최소침해의 원칙(필요성의 원칙) : 법학적 관점에서 이 원칙으로 보완. 가능한 한 사익을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필요성의 원칙을 요구
- ❖ 비례원칙 : (경찰)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 비례원칙의 3가지 구성 요소: 상당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수단은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에 법칙으로나 사실상으로 유용한 것)

# 비례의 원칙에 따른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

\* 붉은 색 글씨는 각 대상자 저항 범주에서 사용 가능한 최고 수준의 경찰 물리력을 나타냄



# 경찰 물리력 사용 시 유의사항

- 물리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찰관은 다음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경찰관은 헌법, 법률, 명령과 같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사회질서) 등도 반드시 준수하여 물리력 사용의 객관적 합리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서양속: 공공의 질서, 국가와 사회의 일반적인 이익 의미)
- 2. 경찰관은 과잉 물리력, 경찰청으로부터 공인 받지 않은 물리력 수단, 기타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경찰관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민족, 국적, 성적체성 등과 관련된 선입견으로 인하여 차별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경찰관은 대상자가 정당한 공무집행에 다소 비협조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경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징벌하거나 복수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5. 경찰관은 업무의 편의, 대상자 및 다른 일반 시민의 공포감 또는 경각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리주의와 경찰행정 혹은 경찰활동

- 경찰관의 고결한 명분(noble cause)은 좋은 결과를 목적으로 한 활동이라도 불법적인 것일 경우를 지칭함.
  - 경찰은 경찰권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함. 왜냐하면 경찰윤리는 '가치 중심적 의사결정'으로 경찰관은 자신의 가치에 따라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개입하여 결론을 내릴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
- 경찰의 생산성은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그리고 최근 질적 생산을 강조.
  - 목적론적 윤리설에 기반을 두고 탄생한 공리주의는 능률성 원리를 탄생시킨 후 행정에서 능률성은 중요한 목표로 자리잡게 됨
  - 경찰행정의 효율성 원리는 조직, 인사, 예산 등 전 분야에서 핵심원리가 됨. 경찰활동에서는 범죄전략으로 출동시간을 중요시하게 되고 경찰효과성 측정으로는 체포건수와 벌금 티켓 발급건수와 같은 외형적 결과를 중시. 소환, 불심검문 건수, 범죄율, 체포율, 범죄해결율 등 강조
  - 현대적 경찰활동의 생산성 측정은 경찰기관과 경찰관이 직접적인고객인 지역사회 시민들에 대한 경찰활동의 영향에 중점
-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행정의 이념으로 보면 능률성과 민주성에기반을 둔 것으로 경찰의 역할을 법집행보다 지역사회의 질서유지에 역점
  - 경찰의 기능으로 보면 사건에 대해 대응적인 면보다 시민과의 파트너십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

#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이익을 단순히 비교하자면 소수의 집단적 의사 표시인 집회의 권리가 희생될 가능성이 높음
  -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음. 한 사람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고문도 국가안보나 테러 위험으로부터 수많은 인명 피해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음.
  - 흉악범의 신상공개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 (무죄추정의 원칙).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사회적 응징, 범죄예방 효과, 국민의 알권리 등에 근거를 두고 있음.
- 공리주의는 각 개인의 행복을 동일한 것으로 가정했지만, 개인의 쾌락은 비교 가능하고 질적인 비교가 가능
  - "만족하는 돼지보다는 만족하지 못한 인간이, 만족하는 바보이기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소크라테스가 낫다"
  - 벤담의 공리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존 스튜어트 밀은 많은 행복이 반드시 보다 '나은' 행복이 아니기에 행복의 질적 개념을 도입함.
- 행복(만족)의 총합을 구하는 과정에서 단일통화의 논리
  - 모든 정책은 편익과 비용 분석으로 복잡한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음.
  - 생명이나 인간의 존엄성 같은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할 지 의문

# 의무론

- 행위의 윤리성을 행위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의 중요한 속성에서 찾음. 이런 속성은 인간의 행위를 보편적 법칙이나 원리에 순응하게 됨.
- 경찰기관이나 경찰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바른 가치이며 이들에 대한 당위적인 행동규범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덕원리가 존재 (칸트의 도덕법칙과 롤스의 정의론)
  - 정직, 생명의 존엄성, 약속의 이행, 의무의 수행 등이 보편적 법칙의 전형적 사례
  - 의무론의 대표적인 철학자는 칸트. 칸트의 철학은 두 가지의 명제에 바탕을 두고 있음.
    - ① 인간이 존중 받아야 할 존엄성을 지닌 이성적 존재 (인간을 목적을 대하라),
    - ② 윤리는 행복 극대화를 비롯한 어떤 목적과도 무관
  - 특정한 행동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의무에 따르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를 중시
  - 행위의 윤리적 정당성은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의 중요한 속성에서 판단
    - 행위의 동기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의 기초
    - 잘못된 이유로 실행된 도덕적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없음
  - 칸트는 공리주의를 비판
    - 전체 행복을 위해 특정인을 희생시키는 공리주의 사고 비판

- 윤리적 행위의 궁극적 기초가 되는 세 가지 공식

- 1) 보편적 입법원리로서의 준칙

- 정언명령 : 윤리적 행위의 궁극적 기초가 되는 근본적 원리. 결과와 무관한 원칙적 형태의 절대적 도덕명령
- 행위의 도덕적 허용성은 보편적 원칙에 타당성을 갖고 있어야 함. 보편적 원칙은 모순 없이 보편화가 가능한 행동원칙
- 보편적 원칙은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그 규범에 따른 규범. 이런 보편주의는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자기와 같은 동일한 존재로 인식함
- 도덕의 보편성 추구 : 옳고 그름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 도덕의 보편성은 스스로 자율적이고 도덕적인 판단과 행위를 결정하는 이성에 기반
    - 타율적 요인에 의한 판단이 아님
    - 모든 사람은 동일한 도덕법칙에 도달
    - 우리의 행동에 도덕적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이기심, 분별력, 끌림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하는 능력
- 칸트의 거짓말에 대한 주장-살인자가 쫓는 사람에 대한 질문에 ,거짓말(모른다/진실 위반) vs. 오해할 만한 정직(한 시간 전에 지나갔다/ 윤리적 용인)

## 2)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 칸트는 전체의 행복을 위해 특정인을 희생시키는 공리주의적 사고를 비판함.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져야 할 존엄성을 지닌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임
- 인간은 존엄성을 가진 이성적 행위자로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행위자
-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과 목적으로 대하는 것의 경계가 불분명 (예, 가난한 사람의 복지(목적)를 위해 부자에게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수단으로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음.
- ❖ 공무원에 대한 시사점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봉사하는 국민들이 자신(공무원)의 고용을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닌 본질적인 의미(국가의 주인) 때문에 봉사의 대상이 됨을 주지해야 함.

## 3) 모든 행위가 목적의 영역에 있는 법칙에 맞도록 하라

- 목적의 영역이란 모든 목적들이 하나의 일관된 전체로 통합되는 사회
- 이런 사회에서는 한 개인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의 목적과 일치하고, 사람들이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인식됨.
- 예컨대, 가난한 사람의 복지를 위해 부자에 대한 세금부과가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기꺼이 기여할 때의 상황.
- 칸트의 세 번째 공식은 이상적인 사회로 보여지고, 다만 인간이 그런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평가됨.

- 악행에 대한 책임과 처벌
  - 칸트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교화와 목적이나 사회적 이익이 아닌, '자신의 악행에 대한 책임'이라는 응보라고 주장
  - 범죄자가 이성적인 행동에 의해 무고한 사람에게 해악을 가져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함
  - 사법적 형벌은 범죄 예방, 억제, 교화의 수단이 아니고,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 부과된 것임. (사형제 찬성)
- 의무론의 공헌
  - 공리주의에서 간과한 인간 존엄의 가치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데 공헌
  - 경찰의 권한 행사의 한계를 설정하는 최후의 기준으로써 가능
  - 우리나라 법제도에서는 의무론이 강조하는 것처럼 생명과 생명의 법익형량을 인정하지 않음
  - ❖ 법익형량은 기본권 간의 위계질서의 존재를 긍정한다는 전제하에 복수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 간의 법익을 비교하여 법익이 더 큰 기본권을 우선시하는 원칙
    - 대법원 판결에서는, 수학권(수업을 받을 권리) > 수업거부권보다 법익형량이 더 크다고 인정
    - 교원 비리 척결을 이유로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의 수업 거부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

- 롤스의 정의론('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원칙')에서 처럼, 경찰관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수호할 때 인권의 존중, 공정성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경찰서비스의 균등한 분배
- 사회적 형평성이 추구하는 경찰행정의 가치
  - 경찰행정에서 중시 되고 있는 대응성, 시민참여, 공정성 그리고 책임성과 관련. 특히, 경찰활동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를 높여야 하고, 편견이 없는 중립성을 이루고, 시민을 권위와 존경으로 가치를 높여야 함.
  - 시민들이 경찰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기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절차적 정의의 수립이 필요
- 경찰행정에서 정의는 공정성과 연관
  - 경찰의 공정성은 경찰의 서비스 전달에서 '예의' '전문성' 그리고 '존중'을 근간으로 하여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경찰의 의사결정에 시민을 참여시키고 시민의 복지와 요구에 관심을 높임으로서 절차적 정의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
  - 또한 경찰의 법률 집행이나 권한 행사는 준법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아울러 합법성도 함께 고려 필요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치안서비스의 불균형의 해소가 요망
- 시민들은 경찰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기를 신뢰할 수 있고 경찰이 자신들의 복지와 요구에 관심을 보여줄 때 절차가 공정하다고 판단하므로 경찰은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

- (사례) 위장수사관의 범죄
  - 테러범죄단체에 신분을 위장한 수사관은 다른 테러범을 살해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게 됨. 이를 거부하면 더 심각한 테러음모를 발각하는 기회를 놓치고, 테러범을 살인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됨. (영화 신세계와 유사)
- (사례) 마크 하우저의 철길가설
  - 다섯 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는 선로 위에서 고장난 기차가 달리고 있음. 레버를 돌리면 다른 선로에서 일하는 한 명의 인부가 희생된다. 선로를 변경시키는 것이 윤리적 정당성이 있는가?
  - 육교 위에 뚱뚱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면 고장난 기차를 정지시킬 수 있고, 5명의 인부를 살리기 위해 밀치는 행위는 윤리적 정당성이 있는가?

#### ❖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

- 딜레마 사례 – 윤리적 쟁점 규명 – 상황 규명 – 가치체계와 지식상황 – 평가 (대안 선택)